

변증법적 유물론 공부에서 유의사항

무산자

가끔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할 때 변증법적 논리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출판된 술하게 많은 입문서는 각자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읽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수많은 책은 입문서라서 변증법적 논리학의 진면을 모두 소개해 주진 않습니다. 꼭해야 일반적으로 다루는 범주는 적으면 다섯에서 많으면 일곱에 불과하며, 기본 법칙 세 가지 가르쳐 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 입문서는 각 범주가 어떻게 상호전화하고, 또 어떻게 범주가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저 특정 쌍범주가 어떻게 서로 반성 관계에 있는가를 아주 지엽적으로만 설명할 뿐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서는 크게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 부분과, 사적 유물론, 그리고 유물론의 역사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나, 또는 유물론의 역사 대신 인식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M. 콘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서 전3권 체계가 대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문서는 아까 언급하였듯이, 그야말로 입문적인 내용으로만 가득해서 그것을 완독한다고 하여 현대 부르주아 논리학에 대응할 수준만큼의 지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어떠한 체계에 대해 존재론과 인식론을 먼저 따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둥이 없는 고층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존재가 주관 논리학에 선차하지만, 투쟁에서는 그 역의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체계가 논리학적으로 부르주아 체계에 대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영역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보장되면 존재론과 인식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A. 타르스키라는 부르주아 논리학자가 있습니다. 타르스키는 자연사태를 산술하는 대상언어의 이율배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상언어를 ‘서술’하는 메타언어를 새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메타언어의 모든 증명 규칙은 대상 언어의 산술 규칙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메타언어는 대상언어적 차원에서 증명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메타언어 상에서는 참인 논리적 서술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P) “그는 두 시간 전에 죽었지만, 한 시간 전에는 살아있었다”라는 기술은 이율배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언어적 기술에 대해 타르스키는 메타언어로 번역하면, “(P)”는 (P)가 참일 경우 그 경우에만 참이다”로 될 수 있고, 따라서 (P)가 이율배반을 함축한 것과 무관하게, 그것은 메타언어 상에서 진리값을 지님으로써 메타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연사태를 기술하는 대상언어가 갖는 이율배반마저 메타언어값에서는 ‘참’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르스키는 이를 통해 대상언어 내에서 ‘거짓말쟁이의 역설’로 대표되는 이율배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언어와 메타언어의 양 체계가 서로 다른 공리 체계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서로 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논리학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현실에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을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초하는 학문임을 전제한다면, 과연 대상언어와 메타언어 간 이원적 공리 체계를 상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증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논증이 객관적 사태를 온전히 반영하여 그것을 정합적으로 서술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진술을 메타언어값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진리치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부르주아 논리학자 전반이 이미 논리학에 대해 그것이 사태 기술의 실제적 참을 보증기술할 수 없다는 것을 승인—일부 부르주아 논리학자, 예를 들어 S. 크립키 같은 경우 단일 층위 논리학으로 사태 기술의 이율배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부르주아 논리학자들의 장난질을 기껏해야 입문서 내 일곱 가지 쌍범주의 내적 논리 구성을 외운다고 해서 제대로 반박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입문서 완독은 변증법적 논리학에 대한 공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서를 떼었다고 하여 거기서 만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입문서는 공부의 시작일 뿐이고, 더 나아가려면 변증법적 논리학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미 부르주아 논리학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갖춘 변증법적 논리학 서적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논리학》입니다. 《대논리학》개념론에서 제1편 주관성 편과 제3편 이념 편에서 현대 논리학이 다루는 모든 주제가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논리학》을 읽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서를 떼었을 때 그 중간 지점에 속하는 서적을 꽤 많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간 지점에 속하는 서적 중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서적이 거의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E. V. 일리엔코프의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이 있습니다. 생업에다가 실천투쟁까지 하느라 바쁜 노동자들에게 외국어—특히 독일어나 러시아어로 된—로 된 논리학 저서를 읽을 만큼의 지식을 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변증법적 관념론자들의 지식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헤겔 논리학에 대해 서술한 서적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서를 여기서 굳이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관념론적 저술이지만, 변증법적 논리학의 입문서로 쓸 수 있는 책을 추천한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논리학 관련 입문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병태 (2000), 《개념 논리학》, 철학과현실사.
- 윤병태 (2005), 《삶의 논리》, 용의술.

- 윤병태 (2007), 《청년기 헤겔 철학》, 용의숲.
- 이정은 (2006), 《헤겔 『대논리학』의 자기의식 이론》, 한국학술정보.

제가 추천하는 논리학 관련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D. 반트슈나이더, 이재성 역 (2002), 《변증법 이론의 근본구조》, 다산글방.
- E. V. 일리엔코프, 우기동 역 (1990),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 연구사.
- J. E. 맥타가르트, 이종철 역 (1993), 《헤겔 변증법의 쟁점들》, 고려원.
- R. 호르스트만, 김창호 역 (1983), 《헤겔변증법연구》, 풀빛.
- 임석진 (1992), 《변증법적 통일의 원리》, 청아출판사.
- 한국헤겔학회 편 (1995), 《헤겔 연구 2》, 중원문화.
- 한국헤겔학회 편 (1997), 《헤겔 연구 7》, 청아출판사.

그리고 꼭 읽어야 하는 논리학 관련 헤겔 서적 번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G. W. F. 헤겔, 위상복 (2008), 《김나지움 논리학입문》, 용의숲.
- G. W. F. 헤겔, 임석진 역 (2022), 《대논리학 I》, 자유아카데미.
- G. W. F. 헤겔, 임석진 역 (2022), 《대논리학 II》, 자유아카데미.
- G. W. F. 헤겔, 임석진 역 (2022), 《대논리학 III》, 자유아카데미.
- G. W. F. 헤겔, 전원배 역 (2018), 《논리학》, 서문당. (『엔치클로페디』 소논리학 번역서)
- G. W. F. 헤겔, 황설중 역 (2003), 《믿음과 지식》, 아카넷.
- G. W. F. 헤겔, 황설중 역 (2003), 《변증법과 회의주의》, 철학과현실사.